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상> 이경숙 (성남시 수정구)

얼마 전에 당숙부가 돌아가셔서 장지에 다녀왔다. 작년 가을에 쓰러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자손들의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그만 세상 인연이 다 됐는지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

장지는 당숙부 한 평생을 몸담고 사셨던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뒷산이었다. 십수년 전 가을, 햇살이 맑고 옛노란 은행잎이 꽃잎처럼 깔린 길을 걸어가던 때가 떠올랐다. 구석이 넓게까지 장수하셨던 할머니가 타신 꽃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할머니는 북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호상이라고 별로 울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여인이었던 할머니, 여름에도 솜버선을 신고 흐트러짐 없이 앉았던 할머니의 자세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섭섭하고 그리웠다. 그 후 은행잎을 보면 할머니의 꽃상여가 떠오르곤 했다.

돌아가신 당숙부는 부지런하시어서 마을 일을 내일처럼 돌보셨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하산을 할 때에는 가족들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뒤으며 "왕생극락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뵙고 큰 법 깨쳐서 천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라고 명복을 빌었다.

나는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광덕 스님의 행사 법어 녹취록을 들으며 교정하고 있다. 녹취할 때 빠뜨린 부분이나 잘못 전달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오자를 고쳐서 문장을 다듬고 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가나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에 입적하신 광덕 스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드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했기에 지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지원하고 또 시작했는데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의 출가제일 법이다. 부처님께서 증생의 생로병

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고행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증생을 구제하시게 됐다. 그 대목을 광덕 스님께서서는 그 때의 광경이 떠오르게끔 실감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녹취록을 교정하고 있다보니 광덕 스님을 뵈게 됐을 때가 생각난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각별한 인연이 될 줄을 몰랐다. 점안식 법회에서 법문하시는 것을 듣게 됐는데 한 말씀 한 말씀에 힘이 실려 있었고 정신이 번쩍 들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마음에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껴서 가끔 산사를 찾게 됐다.

그 후 어느 가을 어느스런 저녁 무렵이었다. 길가의 낙엽들은 세찬 바람에 이리 밀리

고 저리 풀리면서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들은 볼품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 풍경은 나 자신을 보는 듯했다. 나도 언젠가는 낙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차츰 피붙이들도 나를 잊을 것이고 내 존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살아온 날 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줄어든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무엇을 했던 말인가. 땀에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이대로 주어진 삶에만 매달리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 나를 찾자. 이제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해서 일부를

할애하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어느 날 일간신문을 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불교교양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강사진도 훌륭한 분들이었다. 신청을 하고 설레임과 기대로 개강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일주일여 한번씩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교수님이나 스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발우 공양이 있었다. 김치 한 입, 밥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먹어야 하고, 그릇까지 행거해서 마시는 절집에서의 예절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날 환경을 훼손한다고 호들갑 떨고 자연을 보존하자고 외치면서도 역행하는 행동을 볼 때 절집에서의 수행방법은 모답답안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3개월이 다 끝나갈 무렵 어떤 방해꾼이로 인해 수료를 못하고 말았다. 그 사찰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 후 집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은 나를 압박했다.

낙엽의 쓸쓸한 풍경 내 모습 같아 살아온 날 되돌아 보며 '귀의' 결심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⑧

퇴고 글 전체 살피고 문단단위로 고쳐나가야

퇴고에 대하여

퇴고란 글쓰기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이다. 집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져도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고칠 데가 눈에 띄게 마련이다.

몇 년 전 필자가 발자크의 집에서 그의 책상에 있는 자필 원고 엽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본문보다 퇴고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퇴고는 흥이 아니다. 하면 할수록 글이 다져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퇴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퇴고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글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고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 전체를 살필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주제를 구현하는 데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주제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내용은 없는가 △글의 각 부분(문단)의 이음새는 유연한가.

△냉정을 잃어 갑자기 흥분하거나 공연한 감상에 빠진 데는 없는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미심쩍은 내용은 없는가 △제자랑(가족 포함)으로 받아들여질 곳은 없는가. 문단 단위로 퇴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소주제를 구현하는 데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소주제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내용은 없는가 △문장들의 이음새는 유연한가 △문장은 정확하고 분명한가 △단어는 정확하고 알맞은가 △심상(심상)이 있는 경우는 선명하고 표현은 참신한가 △수식어는 정확한가 △오자나 탈자는 없는가 △능동피동의 혼란은 없는가 △저속한 내용은 없는가 △내용의 모방은 없는가 △시제(時制)의 혼란은 없는가 △조사나 접속사의 사용은 정확한가 △피어쓰기는 맞는가.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자세한 내용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킬레이 수행일기 (F)

하화중생의 실천이라고 하니 '수행'으로서의 '하화중생'이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있게 마련이니 그것을 중생에게 회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화중생이고 대승의 수행이다.

보시는 수행의 측면에서 보시 바라밀인데, 보시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 팔도 못하는 사람도 남에게 따뜻한 눈길만은 보낼 수가 있으니 그것을 곧 안시(眼施)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 불자들은 자기 만에 국한된 수행의 안주에서 벗어나 남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함께 실천하는 이상적 수행인 것이다.

<금강경>에는 '사구계(四句偈) 하 나만이라도 지니고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준다면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이성학
능인선원 IT본부

미를 두면 가볍게 다가오고,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면 진지하게 다가왔다. 여기서도 상대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꼭 내 마음만큼 사이버도 반응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온갖 말이 난무하고 답답한 공간에 이처럼 힘든 수행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송광사 서을 분원 법륜사 한주 지득

사이버 공간서 '하화중생' 길 찾아 동호회 통한 교리문답운영 큰 보람

방면으로서는 와 닿지가 않았다.

내 경우도 <금강경> 독송이라는 나만의 수행법에서 벗어나 보시바라밀 수행을 하고 싶었으나 IMF 때에는 경제적으로 곤궁해 현실적인 물질 보시는 꿈도 못 꾸었다.

그러던 중 2000년 초에 어떤 계기가 되어 인터넷 불교동호회 세이클럽 '청년불교우리사랑'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서 수행과 하화중생의 실천이 가능한 공간임을 알았다.

그 당시 내가 잘 할 수 있고 당장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연화정사 청년회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도반들에게 진지하고 성의 있게 불교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취미삼아 한 활동이 점차 회원들도 늘어나고 사이버 공간의 폐해를 알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익명성의 공간일수록 내 수행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신경 쓰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사이버 단체를 의사단체(擬似團體)로 여기고 가벼운 의

스님은 매우 깨어있는 스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기꺼이 지도 법사를 자임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회원들을 지도해 주셨다.

아는 것을 답변으로 회향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보시바라밀의 한 방법이다.

수행과 포교도 시대에 발맞추어 이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한다. 대승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보살이라면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일 것이다.

불교 수행에 관심이 많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는 불교계와 인연을 맺어 능인선원에서 일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더 열심히 일해보라고 이끌어준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파지고 보면 제대로 된 수행의 이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가망치 않으나 이 글을 계기로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 복잡한 속에서도 <금강경> 몇 구절 읽으니 마음이 평안해진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배재학 (법명 도일)
- 승려번호 : 9294-10129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

2004. 12. 8

대한불교일명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토굴(心자 도랑)안내

가야산(1,430m)과 단지봉(1,327m)이 천을(天乙), 태을(太乙)로 받쳐주어 일체 흥액을 떨하는 곳 1,000m 준봉 7개가 둘러싸고, 봉우리 5개가 마음 심(心)자를 그려내는 해발 650m 고지의 30리 포천 계곡의 최상부 절영 10m폭 계곡은 비경중의 비경 숨겨진 가야산 수형터임, 3km 절 뒤 입도는 청정 무공해 산책길

- 전기, 전화, 진입로 포장
- 대지포함 500평
- 위치 :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내
- 가액 : 답사후 상의

문의 011-9366-8929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영 특별상담 접수부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문답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 동방바지 190,000 ~ 210,000
 -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역물, 손염색)
 -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염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욕수 누비(역물 염색)
 -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수 누비(울세탁)
 -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 실크 ·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 대가사 150,000 ~ 200,000
 -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